



<순서>

1. 총장 인사말
2. 생활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3. 대학발전자문위원회의 출발을 알립니다
4. 파주 시민의 힘, 100인 장학위원회가 새로운 장학 문화를 만듭니다
5. 웅지세무대학교 발전기금, 힘내라 웅지
6. 동문회, 만 원 이어달리기 장학기금
7. 세무사 최종 합격자 수 전국 1위
8. MOU 체결 현황
9. 고시반 운영

【총장 인사말/제13대 최광필 총장】

취임 1년,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기의 웅지세무대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세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우선 2024년 교육부 평가에서는 국가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 대학 I 유형으로 한 단계 올라갈 계획입니다.

관건은 21년 기준 <교육비 환원율>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전산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어서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생활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에 투자하여 이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파주시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파주는 예로부터 문향(文鄉)으로 손꼽히는 곳이며, 지금의 한반도 평화의 중심도시이자,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기업 활동이 전개되는 위성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이러한 지역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주의 시민들이 학교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파주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학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일하게 파주에 대학 본부를 두고 있는 우리 대학을 열성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파주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지닌 회계세무 특성화의 장점을 파주시와 파주 기업인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 놓겠습니다.

셋째, 우리 대학을 학생들이 회계, 세무,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꼭 필요한 사다리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하시는 대학으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지금도 매일 입학지원실로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힘든 꿈을 이룬 졸업생들이 만족하는 대학입니다. 그동안 응지를 거쳐 간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였고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 올해 세무사 합격자 수 1위입니다. 유수의 명문대학교를 제치고 세상이 놀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은 단순히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회계세무 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번 쾌거는, 우리 대학이 전문대생의 평균적 한계를 넘어 전문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응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었던 불법적인 규정들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학부제를 학과제로 변경하였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수년간 해내지 못한 정원 감축을 결정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을 수용하여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소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남아가는 학교 시설도 조만간 새롭게 단장될 것입니다. 최근 조경 작업으로 정갈해진 캠퍼스는 초록과 녹음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과 지역 사회의 관심 및 격려를 통해 학생들은 꿈을 실현하고, 동문들은 자부심을 가지며, 학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응지가 될 수 있도록 학교를 이끌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바람 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응지가 되도록 교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의 놀라운 성과의 바탕에는 재학생이 전원 생활관에 들어와 밤낮으로 공부했던 시간과 노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 생활관의 시설이 노후되어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제1, 2, 3생활관을 보수하여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환경 개선 및 만족도 향상, 학교 위상 제고 및 우수 신입생 유치를 통해 학교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의 주요 내용은 옥상 및 벽면을 통한 누수 현상을 보수하고, 각 호실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단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탱크, 오수조 관련 기계를 정비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교육부에서 기채 승인을 해 준다면 일부는 호실별 개인 욕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 파주시와 협의 중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태양광 설치 업체에서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학교에서는 시설 임대료를 통해 일차적으로 생활관 보수 공사 재원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생활관의 리모델링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학교에서는 웅지생활관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이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회계, 세무,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웅지세무대학교가 학생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캠퍼스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 대학발전자문위원회의 출발을 알립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 대학발전자문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개교 이래 최초로 발족하는 위원회로 대학의 향후 발전 방향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에 응할 계획입니다.

최광필 총장은 “위촉식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대학발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여러분이 대학 발전에 추진력을 실어 주시면 전 교직원 모두 전력투구해 파주의 자긍심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웅지세무대학교의 발전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저력이 있는 웅지세무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성희(거상자원 대표), 광장미(나이스세무법인 세무사), 김경선(파주시 새마을 회장), 김윤정(파주시 교육지원과장), 나상배 (전 파주시 교원총연합회 회장), 박상돈(중부일보 기자), 박용호(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성기울(파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장), 신동주(파주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재필(탄현면 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종기(발전자문위원), 온명원(탄현면 면장), 최흥식(파주시 체육회장), 김경수(한국전력 파주지사장), 김종훈(청록엔지니어링 대표), 마희정(두성 대표), 신덕현(탄현면 이장협의회장), 유영근(창신종합건설 대표) 등입니다.

■ 파주 시민의 힘, 100인 장학위원회가 새로운 장학 문화를 만듭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파주 시민들을 주축으로 ‘100인 장학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파주 시민 100인이 개인당 1구좌(100만 원) 이상을 10년간 약정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재정지원대학이라는 굴레 때문에 장학금과 학자금 용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파주 시민 스스로 나서서 학교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혜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다시 장학금 기부자가 될 것으로 약속함으로써 ‘장학교육’이라는 새로운 장학 문화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성기울 파주시 이통장협의회장은 ‘100인 장학회 장학금’과 ‘힘내라! 응지 발전기금’을 동시에 기부했습니다. 성 회장은 “작은 정성으로 장학 교육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같은 기부 문화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선 파주시 새마을협의회장도 학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했습니다.

■ 응지세무대학교 발전기금, 힘내라 응지

학교에서는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내라! 응지’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금은 장학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지정기금, 기타 발전기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기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기부자가 직접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교수들과 파주 지역 기업인, 농업인 등이 기부 릴레이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동참하는 발전 기금이 응지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며, 응지의 발전이 파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동문회, 만 원 이어달리기 장학기금

지난 6월 30일부터 총동문회 주관으로 ‘만 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석호(총동문회 준비위원장, 한영 회계법인 회계사)는 ‘만 원 이어달리기’를 통해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총동문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만 원 이어달리기’는 동문회에서 시작했지만 응지의 재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문,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 원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학교의 큰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100인 장학위원회, 발전기금, 만 원 이어달리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응지세무대학교 홈페이지 발전기금 배너를 클릭해 주십시오.

기획처: 031-940-3173

【화제】

웅지세무대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 전국대학 중 1위

최근 7년 누적 합격자 수도 서울시립대에 이어 2위, 회계 세무 분야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한상봉 기자 / 서울신문(2021. 3. 26.)

웅지세무대학교는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35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대학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7년 누적 합격자 수도 190명으로 서울시립대(230명)에 이어 2위가 됐으며, 3위 이하 대학들과는 간격을 더욱 벌렸다.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웅지대는 총 711명의 합격자 중 35명을 배출해 고려대(30명), 서울시립대(27명), 경희대(25명), 한양대(23명), 건국대·단국대·성균관대·연세대(이상 각20명), 동국대(16명) 등 상위 9개 대학을 모두 제치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로써 개교 17년 된 웅지대는 누적 358명의 세무사 합격자와 80명의 공인회계사, 14명의 감정평가사, 472명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회계 세무 분야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웅지대는 2004년 국내 유일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했다. 그동안 최연소 합격자도 다수 배출했다. 공인회계사는 2회, 세무사는 4회, 감정평가사는 2회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했다.

웅지대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 자격증반 및 최적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자기 학습, 고시반, 지도교수 상담제, 심화 학습제, 진도별 수시 고사, 시험 대비 스터디 등 최적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높은 합격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단순 취업률 저조와 학교 재단 비리로 인한 '재정 지원제한대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룬 것이다.

웅지대는 '파주의 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방안을 파주시와 모색하고 있다. 파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파주 100인 장학위원회'를 구성했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 발전 자문위원회'도 발족했다.

정영숙 기획처장은 "올해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 증원이 확정됐고,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세법 및 회계학이 필수로 지정돼 회계 세무대학 특성상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출신 학교 순위

순위	대학명	합격자수
1	웅지세무대학교	35
2	고려대학교	30
3	서울시립대학교	27
4	경희대학교	25
5	한양대학교	23
6	건국대학교	20
7	단국대학교	20
8	성균관대학교	20
9	연세대학교	20
10	동국대학교	16
계		711

【MOU 체결 현황】

○ 국군 재정관리단 2021. 06. 14.

웅지세무대학교에서 국군 재정관리단 장병 및 군무원의 회계·세무 분야 관련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

○ 뉴스플래닛 2021. 06. 07.

인재 양성 분야 정보 공유 및 지적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2021. 05. 18.

국방·군사 시설 및 국유 재산 관리 등에서 감정평가 분야의 기술 및 인적 부분의 교류 활성화, 국유 재산 감정평가 분야의 감정평가 절차·기준·방법 등의 개선

○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2021. 03. 19.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기술 인력의 양성, 취업 확대와 전공 심화 과정, 각종 정부 지원 사업 공동 참여의 여건 조성 등 상호 간의 정보 교류에 협력

○ 명은 커리어 2021. 03. 10.

구인 기업을 발굴해 잡(직업) 매칭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취업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설명회를 여는 등 학생을 위한 통합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고시반 운영】 고시반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고시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응지세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 2021학년도 2학기 고시반 선발 계획

- 8월 중순에 고시반 선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선발 규모: 수현재 도서관 85명 이내(거리두기 좌석 배정 고려)

3. 2021학년도 2학기 고시반 입반 자격

- 1) 여름방학 때 고시반에서 공부한 학생
- 2) 신청자가 수현재 도서관 수용 인원 초과 시 학점 누적 평점 순으로 입반

4. 입반 혜택

- 도서관(수현재) 지정 좌석 제공
- 모의고사 무료 제공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여 해당 시험 직전에 교내외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를 응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교내에서 시험 실시)

5. 자기학습 관리

- 자기학습 시간 7시 30분 - 10시 30분 동안 학습 여부 매일 3회 체크(월-금)
 -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중간 랜덤 체크 각 1회씩
 - 4주일에 20회 이상 무단 체크 시 즉각 고시반원 자격 상실
- 1주일에 7회 이상 체크될 경우 다음 주에 즉시 도서관장 특별 면담

6. 매월 토익 모의고사 실시

※ 문의: 도서관장 박선하(sunha@wat.ac.kr)